

『호밀밭의 파수꾼』과 『성북지대』 비교*

— 인물형상과 성장서사를 중심으로

장운선**

목 차

1. 들어가며
2. 『호밀밭의 파수꾼』과 『성북지대』의 인물형상
 - 1) 고뇌하는 '파수꾼', 홀든
 - 2) 밤에 피는 야반화(夜飯花), 4명의 악동
3. 성장의 고행
 - 1) 아버지의 부재
 - 2) 성장과 좌절된 성장
 - 3) 남방 소년 형상 서사
4. 나오며

국문초록

쑤통의 작품세계를 일람(一覽)해보면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많은 작품들을 접하게 된다. 쑤통은 소년 인물형상과 성장을 다룬 자신의 작품이 미국 작가 샐린저로부터 영감과 영향을 받고 창작되었음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쑤통은 무조건적인 샐린저의 영향과 모방이 아닌 본인의 특색을 입힌 차별화된 남방(南方) 소년형상과 서사를 구축했다. 본고에서 필자는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쑤통의 『성북지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혹독한 성장 고행을 겪는 소년들의 성장담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인물형상과 성장 서사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적 환경 속 청소년들이 겪는 성장의 고행(苦行)을 면

* 본 논문은 2023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밀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쑤통의 남방 소년 형상 서사에 나타나는 특징 및 의미를 탐색한다. 두 텍스트에는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양상이 엿보인다. 아버지의 부재는 소년들에게 성장의 위기와 곤경을 초래하며, 소년들로 하여금 ‘결핍’과 ‘상처’를 지닌 채 방향하게 만든다. 그러나 샬린저는 좌절과 방황을 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화하는 청소년의 성장 서사를 보여준 반면, 쑤통은 폭압과 통제로 가득한 공간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비극적 서사와 성장을 그려낸다. 특히 쑤통이 창조하는 남방 소년 형상 서사는 작가의 비극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폭력, 죽음, 미에 대한 붕괴와 같은 작가의 독특한 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와 구원이라는 낭만적 가치를 지향하는 샬린저의 작품과는 차별화된 쑤통의 남방 소년 형상 서사의 독특성이다. 쑤통이 창조해 낸 남방 소년 형상과 그들의 비극적 서사는 문혁이라는 아물지 않는 상처와 기억 속에서 창조된 중국인들의 혹독했던 성장통에 대한 초상(肖像)이다. 쑤통은 이들의 청춘을 박탈하고 성장을 멈추게 한 사회를 향해 질타를 그리고 그 시절을 잃어버린 동시대인들의 상처를 위로한다.

키워드: 샬린저, 쑤통, 호밀밭의 파수꾼, 성북지대, 성장 고행, 아버지 부재, 남방 소년 형상

1. 들어가며

문혁의 암울했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게 출발한 신시기 문단에는 서구의 각종 문학 사조 유입과 함께 해외 작가와 작품들이 대거 번역되어 출판된다. 이 가운데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이하 ‘샬린저’로 약칭)와 그의 대표작 『호밀밭의 파수꾼』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국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중에는 “샬린저는 내가 열광하는 작가로 나는 그의 모든 작품을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 읽었다. 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塞林格是我最痴迷的作家。我把能覓到的他的所有的作品都讀了。我無法解釋我對他的這一份鐘愛)”¹⁾이며, 샬린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고백하는 쑤통이 있다. 그는 자신이 서구 작가의 영향을 받

1) 蘇童, 「我的讀書生涯」, https://m.thepaper.cn/baijiahao_18213562 참고.

있다는 것에 세간의 굵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어떤 작가라도 모두 다른 작가들의 영향을 받는다. 독자적으로 혼자 특출 난 작가는 없다. 외국 작가이든 중국 작가이든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다. 작가 간 주고받는 상호 영향이 문학적 성장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결국 본인 문학의 궤적을 형성한다. 따라서 왜 영향 관계를 금기시해야 하는가, 나는 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²⁾

보시다시피 쑨통은 문학적 영향과 수용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본인의 창작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더구나 그것이 서구 작가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국 작가로서는 다소 결끄럽고 민감한 화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쑨통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 자리에서 샬린저의 영향을 당당하게 언급했다. 특히 쑨통은 샬린저의 작품 중 『호밀밭의 파수꾼』을 걸작으로 극찬하며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힌다.

그의 『호밀밭의 파수꾼』은 대학 시절에 읽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독특성은 문학적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묘사는 내게 감동을 주었다. 그가 묘사한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와 과정은 나와 매우 닮았다. 『호밀밭의 파수꾼』속 청소년의 심리 묘사는 산만하고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숨결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세밀하다.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 외에 『호밀밭의 파수꾼』과 『아홉 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년들의 풋풋하고 단순한 심리 상태, 정서적 성장, 성장의 고통은 내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80년대 말 내가 쓴 일부 단편소설들은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작품집 『少年血』에 수록된 일부 작품도 그의 영향과 관계가 깊다. 다만 나는 글을 쓸 때 그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³⁾

2) 任何一个作家都會多受到一些他人的影響，沒有所謂真正橫空出世的作家。受外國作家影響也好，受中國作家影響也好，都是影響，影響以後還有一個成長的過程，你的成長才是屬於你自己的軌迹，爲什麼要忌諱呢，對此我不忌諱。蘇童、王宏圖，『蘇童、王宏圖對話錄』，蘇州大學出版社，2003，45쪽.

인용문에서 보이듯 쑹통은 샬린저와 그의 작품에 감동과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모두가 순응하고 동화되던 당대의 사회질서와 주류 문화에 맞서, 이를 거부하고 비판한 샬린저의 작가 정신은 쑹통을 매료시켰다. 선봉 작가로서 출발했던 쑹통은 샬린저로부터 동질성을 느끼며, 그의 작품을 있는 대로 구해 탐독할 정도로 샬린저에게 심취했다. 쑹통은 샬린저가 소년들을 작품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서사를 펼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서술방식, 서사구조, 문체, 서사 내용 등 다양한 문학적 요소를 흡수했다.⁴⁾ 특히 샬린저의 작품 속 대부분 소년 형상들이 성인 세계로의 입문을 앞두고, 성인 세계와 대립하며 정신적 방랑과 좌절을 경험하는 성장 주체란 점은 쑹통의 시선을 끌었다. 이는 다양한 인물형상과 소재에 목말라 있던 쑹통에게 새로운 영감을 부여하고 의욕을 불어일으켰다. 쑹통 역시 수많은 소년 형상을 창조하여,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당대 중국 사회를 포착하여 민중들의 열악한 생존 환경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소년들은 쑹통의 작품 속에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이자, 그 시대의 ‘목격자’이자 ‘희생자’의 모습을 보인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쑹통은 ‘자기화’의 과정을 거쳐 쑹통만의 특색이

3) 他的『麥田的守望者』是我在大學時讀的。他的貢獻不僅在於他貢獻了青春看人生的獨特角度，而且他對青春本身描寫也打動了我，他描寫的青春的人的心路歷程和我很像。…『麥田的守望者』對於少年心的描寫散漫而無所用心，却如聞呼吸之聲。除了社會環境不同，『麥田』和『九故事』中少年們的青澀心態、成長情緒、成長困難，都深深打動了我。我在80年代末有一批短篇小說都深受他的影響，我的小說集『少年血』中的一些作品，和他的影響有關。我只是在寫作時竭力控制，遠離他的陰影。周新民、蘇童，「打開人性的皺折-蘇童的放談錄」，『蘇童研究資料』，天津人民出版社，2007，214쪽.

4) 소위 ‘참죽나무(香椿樹街) 거리’ 시리즈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년 형상과 서사는 샬린저의 영향과 관계가 있다. 周新民은 1984년 『桑園留念』을 필두로 1994년 『城北地帶』에 이르기까지 10년 기간 동안 참죽나무 거리 시리즈에 등장하는 소년(소녀)들을 작품별로 일일이 언급하며, 쑹통이 ‘독립적이고 있는 그대로(本眞狀態)’의 소년(소녀) 인물형상들을 그려내기 위해 표현대상, 서술형식, 가치관, 언어 형식 등등 다방면에 걸쳐 샬린저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周新民, 「塞林格與蘇童: 少年形象的書寫與創造」, 『外國文學研究』, 2009年 3期 124쪽 참고.

가미된 소년 인물형상과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에서 ‘다만 나는 글을 쓸 때 그의 그림자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란 대목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앞에서 ‘작가 간 주고받는 상호 영향이 문학적 성장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결국 본인 문학의 궤적을 형성한다’고 강조한 쑤통의 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논자 周新民 또한 양 작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 및 전통의 차이로 인해, 쑤통은 켈린저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⁵⁾ 상술한 쑤통의 발언과 논자의 내용을 근거로 그의 문학 궤적을 살펴보면, 쑤통은 켈린저와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적 감성과 특징을 덧입힌 남방 소년 형상과 서사를 구축한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성북지대』는 장편소설로서 인물형상의 다채로운 성장 서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켈린저와 차별화된 쑤통만의 세계관과 독특한 미학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호밀밭의 파수꾼』과 『성북지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1951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고전 명작으로, 16살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10대 사춘기 소년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다. 켈린저는 성장의 길목에서 세상과 불화하며 갈등하는 소년의 예민한 감성과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성북지대』는 1994년에 발표된 쑤통의 작품으로 척박한 생존 환경 속에서 성장의 터널을 힘겹게 관통하는 소년들을 중심으로 방향과 성장 분투기를 그려낸다. 두 작품 모두 성인 세상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혹독한 성장 고행을 겪는 소년들의 성장을 그린다. 본고에서 필자는 두 텍스트의 인물형상과 성장 서사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적 환경 속 청소년들이 겪는 성장의 고행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쑤통의 남방 소년 형상 서사의 특징 및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⁶⁾

5) 畢竟蘇童與塞林格所處的具體的文化環境、社會背景、文化傳統不同，在接受塞林格影響的同時，蘇童也有自己獨到的創造。周新民，「塞林格與蘇童：少年形象的書寫與創造」，《外國文學研究》，2009年3期124쪽 참고.

6) 켈린저와 쑤통을 비교하는 중국내 선행 연구자료는 많지 않으며, 주로 개괄적 차원의 단

이를 위한 본고의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형상과 이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먼저 개괄적으로 탐색한다. 3장에서 성장 소설적 독법에 근거하여 ‘아버지 부재’ 및 인물들의 성장 풍경을 심층적으로 비교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쑤통의 성장 체험과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연관지어, 남방 소년 형상에 투영된 작가의 비극적 세계관과 그의 독특한 소설 특징을 살펴본다.

2. 『호밀밭의 파수꾼』과 『성북지대』의 인물형상

1) 고뇌하는 ‘파수꾼’, 홀든

『호밀밭의 파수꾼』은 학교에서 퇴학 통보를 받은 홀든 콜필드(Holden Caulfield)이하 ‘홀든’으로 약칭함)가 뉴욕 거리를 배회하면서 목도한 세상과 혼란스러운 내면을 1인칭 시점으로 보여준다. 변호사인 아버지, 시나리오 작가인 형을 둔 홀든은 중·상류층 가정의 소년으로 겉보기에 부족함 없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그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 관계의 결핍으로 늘 외로움에 허덕인다. 부자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나 공감대는 없으며, 남동생이 죽은 뒤

순비교에 치중되고 내용이 중복된 경우가 있다. 周新民의 「塞林格與蘇童: 少年形象的書寫與創造」과 楊慶香의 「此間的少年—『麥田里的守望者』與『城北地帶』比較」는 필자가 본고를 기획하고 논지를 전개시키는데 일정 부분 방향과 틀을 제공했다. 다만 두 논자가 샬린저와 쑤통을 비교하는 방식과 내용이 평면적인 단순 전개에 치우쳐서, 연구 성과의 기여도 측면에서 많이 취약하다. 이에 필자는 샬린저와 쑤통의 두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 특히 샬린저와 차별화된 쑤통식의 소년 형상 서사 특징 추출을 위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에는 두 작가와 작품을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는 없기에 본고 기획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다만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인물형상과 성장 서사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고, 아쉽게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찰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은 차후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는 홀든에게 냉담하다. 더욱이 홀든은 네 번이나 학교를 옮길 정도로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며,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이다. 그가 전전한 학교는 전통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엄격한 규율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사들은 한결같이 최고·최상만을 강조하며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주입한다. 홀든은 자율성과 다양성은 무시한 채 성적과 입시만을 중용하며 세속적인 성취와 부를 강조하는 학교와 교사에 염증을 느낀다. 특히 허위와 가식으로 찌든 교사들의 이중적인 민낯을 목도 하면서, 홀든의 반발과 저항은 증폭된다. 부유한 학부모에게는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굽실거리고, 반면에 행색이 초라한 학부모한테는 억지 미소만을 날리며 무시하듯 지나가는 하스 교장.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다’며 인생의 승패를 스포츠 시합에 비유하며 학업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을 인생의 낙오자, 패배자로 취급하는 써머 교장 등. 배움과 지성의 전당이란 말이 무색하리만큼 무지와 차별로 가득 찬 학교에 홀든은 환멸감을 느끼며, 교사들의 위선과 세속적 가치관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학교의 획일적 교육이념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교사들의 허위와 가식, 세속적 욕망을 답습하는 또래 친구들을 향해서도 맹폭한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이들을 겨냥해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 ‘사기꾼들 천지’, ‘엉터리 같은 녀석들만 있는 곳’, ‘악취만 가득했던 학교’, ‘그 자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나중에 케달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자와 술과 섹스 얘기만 지껄여 댄다’며 노골적으로 맹비난하고 혐오한다. 질식할 것 같은 학교를 벗어나 뉴욕으로 향한 홀든은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세상의 적나라한 민낯을 경험하며 다시금 좌절한다.

뉴욕은 유흥과 향락, 성적 유희와 일탈, 저속과 음란, 금전 만능주의가 난무하고, 종교의 경건함, 예술의 고결함, 인간의 순수성이나 도덕적 가치는 변질되고 퇴색된 지 오래다. 추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홀든의 내적 방황과 혼란은 극대화되고 그는 서부로의 탈출을 꿈꾼다. 서부는 뉴욕과는 대척점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세상의 때와 오염을 타지 않은 청정세계이다. 홀든은 서부 숲

속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귀머거리와 병어리 행세를 하면서, 병어리 아내와 결혼해서 살겠다고 말한다. 이는 세상에 염증과 환멸을 느끼는 홀든이 외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상상하며 그 속으로 숨고자 하는 일종의 현실 도피이다. 더욱이 그는 아이를 낳으면 '애를 어딘가에 숨겨 놓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이를 숨겨 놓겠다는 바람 또한 세상의 온갖 위험 요소로부터 아이의 영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피해 혼자만의 고립된 세상으로 탈출하려 했던 홀든의 발길을 잡은 것은 '어린이'였다. 어느 날 홀든은 무심코 차도 옆 보도블럭을 걷는 꼬마 아이를 목격한다. 제 길만 걸어가는 부모와 대조적으로 천진난만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아이 모습을 보며, 홀든은 아이가 차도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 그리고 홀든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의미를 자각한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⁷⁾

홀든의 시선 속에 아이들은 성인 세계에 진입하지 않은 때 묻지 않은 존재로서, 그 자체로 순진무구하고 거짓 없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파수꾼'이 되어 주겠노라는 그의 갈망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로, 치열한 내적 방황과 모색 끝에 홀든이 찾아낸 소명이자 삶의 목적이다.⁸⁾

7) J.D. 셸러저, 『호밀밭의 파수꾼』, 공경희 옮김, 민음사, 2001, 229-230쪽.

8) 위험천만한 찾길에서 아이는 방입한 채, 제 갈 길만 가는 부모와 혼자 걸어가는 방치된 아이의 모습에서 홀든과 그의 부모가 중첩된다. '차도'와 '절벽'은 아이들의 생명, 순수,

2) 밤에 피는 야반화(夜飯花)⁹⁾, 4명의 악동

1970년대 쭉저우의 소도시, 성의 북쪽 지대에 위치해 성북지대(城北地帶)라 불리는 이곳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이다. 작품의 포문을 여는 마을을 뒤덮는 매캐한 공업 연기와 잿가루, 공장의 오수와 오물, 악취가 진동하는 성북지대에 대한 묘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소년 소녀들의 비루한 현실과 운명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쭉통은 4명의 ‘악동’ 다성(達生), 홍치(紅旗), 쉬더(徐德), 샤오파이(小拐)를 중심으로 이들의 방황과 비극적 파국을 그려낸다.

다성은 걸핏하면 무단가출을 일삼고 동네 불량아들과 어울리며 온갖 일탈을 일삼는 문제아다. 그의 일상이라곤 삼삼오오 모여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혹은 빈둥빈둥 거리를 거닐며 애꿎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동물에게 분풀이를 해대는 것이다. 다성은 싸움의 일인자가 되어 동네를 평정하겠다는 치기 어린 야망을 갖고 있다.¹⁰⁾ 이 일념으로 끊임없이 체력을 단련하고, 무예를 배

선함을 위협하는 위협하고 타락한 세상을 혐의한다. 홀든은 세상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지만, 주변에는 그런 대상(부모, 교사, 사회)이 부재했다. 순진무구한 어린 여동생, 길가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서 홀든은 자신의 현재를 대입한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신과 같이 방황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거라는 안타까움, 연민은 그를 각성시킨다.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파수꾼, 수호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홀든의 각성 및 자아 성장의 주요 모멘트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이 대목이 함축하는 풍부한 함의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홀든의 성장 서사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다룬다.

9) 원래 야반화(夜繁花)라고 불리는 이 꽃은 작품 속 설명에 의하면 한 철 여름 저녁에만 피는 꽃으로, 황혼 무렵에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다음 날 아침에 꽃잎을 분주히 거둬들이는 모습이 마치 저녁때만 되면 밥을 먹으려고 잠깐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연상시킨다 해서 야반화(夜飯花)라고도 불린다.

10) 싸움의 일인자가 되고 싶다는 다성의 야망 속엔 폭력에 대한 동경이 자리한다. 다성은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줄 어떤 ‘조력자’, ‘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체득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자신이 경험했던 ‘폭력’이다. 다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잦은 구타와 체벌을 당하며 부자간의 관계마저도 폭력과 굴종으로 치환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폭력 속에서 패한 자는 죽거나 불구가 된 채 도태되는 현실을

우췌다며 무림고수를 찾아다니는데 몰두한다. 쉬더 역시 다성처럼 학교에서 일찌감치 내쳐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다. 큰 덩치에 성적으로 조숙한 쉬더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유부녀 진란(金蘭)과 관계하며 성적 일탈을 저지른다. 그런데 쉬더의 아버지 또한 진란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 사실에 분개한 쉬더는 난동을 피우다 살인미수 명목으로 구류 처분을 받는다. 또래 중 열여덟 살로 나이가 가장 많은 흥치는 사촌 깡패 형들이 몸담는 조폭 세계를 동경하고, 그들을 추종하며 비행을 일삼는다. 어느 날 순간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웃집 소녀 메이치(美琪)를 성폭행하며 일찌감치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다. 또래 중 제일 왜소하고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샤오과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탓에 한쪽 다리를 절어 ‘짚룩이(小拐)’라 불린다. 샤오과의 일상 또한 다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 거리를 전전하며 시간을 떼우거나 혹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줌도독질을 일삼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살상하는 것으로 내면의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을 해소한다.

이처럼 성북지대 악동 4인방은 도시의 빈민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비행과 일탈로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를 관통한다. 이들의 위태로운 방향을 저지르고 바른길로 선도할 가정과 학교는 역할과 책임을 진작에 방기했다. 가정은 정서적 안정과 돌봄, 관심이 제공되는 안전하고 자애로운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무관심, 냉대와 학대가 자행되는 공간일 뿐이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처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고, 무분별한 외도를 일삼으며 가정은 등한시한다. 이들에게 처자식은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존재라기보다 그저 자신의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는 분풀이 대상이다. 성북지대에선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줄 어머니의 모정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성의 어머니 텡핑(騰鳳)과 흥치의 어머니 쑤위주(孫玉珠)이다. 텡핑은 어린 나이에 뱀꾼 부친에 의해 다성의 아버지에게 팔려와,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감금을 당하며 다성을 낳았다. 남편이 죽은 뒤로 대리 가장이 되어 생

목도했다.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은 다성에게 ‘힘=폭력=생존’이란 왜곡된 신념을 각인시키며, 그로 하여금 폭력을 동경하고 이에 집착토록 만들었다.

계를 떠맡게 된 그녀는 다성에게 저주와 폭언을 해대며 자신의 분노를 투사할 뿐이다. 모성을 상실한 어머니는 다성에게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를 계승한 또 다른 폭력 가해자로 자리매김한다. 쏜위주는 홍치가 메이치를 성폭행하고 수감되자 오히려 애꿎은 메이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그녀는 홍치의 성폭행 원인을 메이치에게 전가하고, 메이치 엄마에게 돈을 주며 회유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범법자인 아들을 두둔하고 구명하고자 오히려 무고한 소녀와 가정을 고통의 수렁으로 이끄는 쏜위주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왜곡된 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성북지대 속 가정의 모습,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온전하고 정상적인 모습과 철저히 반대되는 붕괴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

학교 또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혐오와 적대시의 대상으로 철저히 부정될 뿐이다. 아이들이 다녔던 동평(東風) 중학교는 ‘살인과 방화의 상징’이라는 세간의 오명이 말해주듯 정상적인 교육기관과는 거리가 멀다. 바깥세상을 축약해놓은 학교는 폭력과 피바람이 횡행하는 작은 폭력 사회이다. 학생을 선도하고 폭력을 근절해야 할 교사들은 학폭의 주체가 되어 체벌이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생들 간엔 서열정리라는 명목으로 학폭과 집단 괴롭힘이 자행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폭력 사태를 묵인·방임하고, 학생들 역시 비일비재한 폭력을 방관한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은 반목하며 서로를 경멸하고, 급기야 학생들이 때로 교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교사? 인민의 교사? 옛이나 먹으라고 그래. 지금 저 애들한테 어딜 봐서 선생이 필요해? 이런 동네에 무슨 학교가 필요하겠냐고? 내가 보기엔 차라리 동평 중학교를 소년원으로 바꾸는게 낫겠어.”¹¹⁾ 냉소와 체념이 뒤섞인 교사의 욕설은 무너진 사제관계와 붕괴된 교육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학교는 이런 불량아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구제 불능의 낙인을 찍어 퇴학시킨다. 이렇듯 학교는 아이들을 교화대상이 아닌 오로지 처벌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퇴학이란 명분으로 사회라는 험지(險地)로 추방시켜 자신들

11) 쑤통,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169쪽.

의 책임을 사회에 떠넘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기다리는 사회는 어떤 곳인가. “성동은 난폭하고, 성서는 흉악하고, 성남은 살인 방화, 성북은 똥통이로구나”¹²⁾라는 문장은 집단 폭력, 인권유린, 무법천지의 문혁 시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거리로 내쳐진 천둥벌거숭이 소년들에게 사회는 성인사회의 범죄와 일탈을 모방하고 습득하는 범죄 훈련소와 다름없다. 본보기가 되어줄 온전한 어른들이 부재하니 아이들은 세상의 온갖 비루하고 추악한 것부터 접하게 된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끼리끼리 연대해 뭉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강자가 되어 자신의 몸뚱이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이곳 성북지대이다. 척박한 음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칭춘’이라는 푸르른 싹조차 제대로 틔우지도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성북지대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현실이자 운명이다.

3. 성장의 고행

본 장에서는 텍스트 속 인물들의 성장 고행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아버지의 부재’에 의거하여 부자 관계 속에서 소년들이 겪는 성장의 마찰과 곤경을 살펴보겠다. 두 번째 절에서는 성장의 위기와 곤경에 대한 소년들의 대응양상과 그들의 성장이 각기 어떤 결말로 귀결되는지 살펴보겠다.

1) 아버지의 부재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주체가 위기와 장애를 극복하여 성장과 성숙에 이르

12) 위의 책, 395쪽.

는 과정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따라서 성장소설 속 청소년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는 자녀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립할 때 본(本)으로 삼는 거울이다. 자녀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강력한 권위, 법, 질서, 체제를 자연스레 내면화하거나 혹은 이에 반발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두 텍스트에는 모두 아버지의 부재 모티프¹³⁾가 나타난다.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에도 소년들의 성장을 이끌 아버지는 부재하며, 아버지를 대체해 동일시로 삼을 역할 모델 또한 부재하다.

홀든의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력한 권위와 위상을 가지며, 가정 내에서 철저하게 군림하는 자로 존재한다. 홀든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할 때마다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했던 것은 그간 아버지는 절대 권력과 강압에 감히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홀든은 대외적으로는 아버지를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학벌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분류하고 세속적 성취와 가치만을 역설하는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는다. 이는 아버지가 속한 상류층 변호사들의 허세와 위선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홀든은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는 변호사들의 직업적 소명은 그저 허울 좋은 포장일 뿐, 어떻게든 재판에서 승소하여 커리어와 유명세를 쌓아 좋은 집을 사고 골프 치고 고급 마티니를 마시는 등,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변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와 비판은 결국은 아버지를 향한 거부와 반항이다. 실제 홀든이 관찰한 바로 아버지는 오로지 수입료와 명성, 부(富)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약자를 위한 변론이나 재판은 관심조차 없다. 더욱이 부자지간에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은커녕 정서적 결핍과 방치만이 있다. 유일하게 아버지가 홀든

13) 주지하다시피 아버지의 부재 모티프는 신화, 전설, 문학 등 다양한 서사 예술에서 다루어지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아버지의 부재는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존적 부재를 비롯하여 물리적 부재, 정서적 부재 등이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말하는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서적 부재 뿐 아니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지도하고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는데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역할’ 부재임을 밝혀둔다.

과 대화를 시도할 때는 홀든의 성적과 입시, 퇴학 문제로, 아버지는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이 사회적 성공의 지름길이라 주장하며 홀든의 학교 부적응과 성적 부진을 강하게 질책할 뿐이다. 아버지는 홀든의 외로움과 고독, 아픔과 상처를 알지도 공감하지도 못한다.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아버지에게서 홀든은 올바른 성장의 본과 방향을 제공받지 못한다. 정서적 결핍과 상처는 홀든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증폭시키며,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반발만을 불러일으킨다. 아버지의 부재를 대체할 대안으로 형이 있지만 홀든의 시선에 비친 형 또한 아버지의 세계관을 답습하고 재생산하는 일원일 뿐이다. 형 D.B.도 한때는 순수예술가 지망생으로 동화를 쓰는 작가였다. 그러나 헐리우드로 진출하여 운 좋게 스타덤에 오른 뒤 대중에 영합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 홀든은 헐리우드에서 유명세를 구가하며 고급 재규어를 모는 형에 대해, 신념을 버리고 자본주의에 영합하며 타락한 예술가로 변절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이처럼 샐린저는 아버지의 권위로 표상되는 보수적인 주류 사회 집단의 억압 속에서, 세속적 가치 추구하고 순응을 강요받으며 고뇌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홀든에게 투영한다. 특히 우리는 샐린저가 아버지의 부재가 야기한 정신적 소외와 결핍을 부자지간의 단순한 갈등과 마찰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성세대의 세속적 주류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샐린저가 홀든의 시선과 목소리를 빌어 아버지라는 권력 즉 아버지로 대변되는 당시 주류 사회 집단과 이들이 신봉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⁴⁾

아버지 부재 현상은 성북 시대에서는 아버지들의 추악한 민낯 폭로와 함께

14)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 경제가 전쟁으로 피해를 있을 때 미국만이 승전국으로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된다. 1950년대 미국은 경제적 번영 속에 평화와 안정을 선택하며 정치적으로 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보수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획일성을 강요하고, 미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향유 속에 젖어 세속화된 삶과 가치에 순응했다. 혹자는 샐린저의 작품이 바로 이런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한 신선하고 도발적인 작품으로,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정신적 빈곤을 고발한 반문화의 원조 작품이라고 평한다. 김성곤, 『J.D. 샐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 2005, 12-14쪽 참고.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홀든의 아버지가 경제적 부양자이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춘 가부장의 외양인 것과 대조적으로 성북지대 아버지들은 일제히 무능하며 상스럽고 저질스럽다. 이들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의 책임은 방기한 채 걸핏하면 처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적 방종을 일삼는다. 폭력하면 다성의 아버지 외에 샤오과이의 아버지 왕더지(王得基)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샤오과이가 자신의 장애가 아버지의 폭력 때문일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는 포악하고 비정하다. “잡아 패야지, 죽도록 잡아 패야지. 반죽음을 시켜 놓으면 혹시라도 사람 꼴이 될지 알아”¹⁵⁾란 말이 명시하듯 그에게 폭력은 훈계를 위한 빌미이자 일상이다. 체벌 외에도 밥을 굶기고, 심지어 밧줄로 결박하여 침상 밑에 방치할 정도로 왕더지는 샤오과이에게 가혹한 학대를 일삼는다. 더욱이 그는 야심한 밤 동네 으스스한 곳을 찾아다니며 성관계 현장을 몰래 훑쳐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성도착증 변태이다.

이처럼 성북지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포악하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한 여자를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파렴치한이자 성적 방종자이고, 성욕을 주체 못해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의 범죄자이거나, 성도착증에 집착하는 추악한 아버지이다. 이들은 문혁의 세월 속에서 부조리한 시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등에 업고, 저열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군림한다. 이런 아버지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리 만무하다.¹⁶⁾ 홀든의 아버지나 성북지대의 아버지 모두 아이들이 올바른 도덕적 윤리와 건전한 의식을 지닌 인격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결격 사유투성이의 아버지이다. 샬린저는 가식적이며 세속적인 이미지로 아버지 부재 양상을

15) 쉰통,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278쪽.

16) 성북지대 아버지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긴장과 불안을 조장하고, 아버지에 대한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며 급기야는 타인에 대한 분노, 공격의 투사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들의 문지마 폭력, 동물 학대, 성적 일탈과 범죄, 도둑질과 같은 심각한 비행과 탈선은 정서적 장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드러낸다면, 쑤통은 폭력, 성과 같은 원초적인 본성과 욕구에 탐닉하는 원시적 야만성의 민낯으로 아버지 부재 양상을 드러낸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아버지 부재에 대한 쑤통의 격렬한 저항감이다. 쑤통은 서술자, 등장인물의 시선과 목소리를 빌어 아버지라는 존재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할 존재로까지 극도로 폄하하고 혐오한다. 이는 다성과 쉬더의 경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아버지가 죽길 바랄 정도로 원망과 적개심이 가득했던 다성은 아버지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도하게 된다. 흥건한 혈흔과 나뒹구는 모자에도 ‘칠월 오후의 뜨거운 태양은 혈흔을 바로 쬐어 말려, 멀리서 보면 마치 누군가 실수로 빨간 페인트를 쏟아 부은 것만 같았다’¹⁷⁾라고 서술하는 목소리에서,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의 죽음인 양 아무렇지 않게 치부하는 섬뜩한 냉담함만이 돈다. 애도나 슬픔의 감정은 철저히 거세되어 있다. 또한 그는 진란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안 쉬더가 이성을 잃고 분개할 때도 “열 받게 했음 아빠고 뭐고 죽여야지”라며 쉬더를 부추긴다. 쉬더 또한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이 개같은 늙은이”, “다 죽여 버릴 거야, 쌍. 하나하나씩 다 없애버릴 거라고. 뭐 겁날 거 있어”라며 아버지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난동을 부린다. 이후 쉬더의 아버지가 급기야 자신의 거시기를 절단하는 엽기적인 자해를 벌이는데, 다성은 “너희 아빠 꺼……떨어졌대. 뺑 아니야. 정말 떨어져나갔대”¹⁸⁾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고, 쉬더 역시 아무렇잖은 듯 맞장구치며 아버지를 비웃고 멸시한다. 이처럼 쑤통은 아이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빌어 아버지를 향한 패륜적 언행을 서슴지 않으며, 거시기가 잘려나간 아버지를 희화화하며 한껏 조롱한다.

기표로서 남근(男根)은 남성성의 상징이자 강력한 부권(父權)을 의미하는 기의를 갖는다. 남근의 절단은 바로 부권의 추락이자 부권 상실에 대한 메타포이다. 절대 권력으로 강력한 부권을 행사하던 아버지는 남근을 상실한 결과 한낱 우습기 짝이 없는 놀림감의 대상으로 희화화되고 조롱된다. 이는 그간

17) 쑤통,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10쪽.

18) 위의 책, 147, 157, 331쪽 참고.

아버지란 이름으로 행해진 폭압과 탄압에 대한 전복이자, 부권에 대한 강력한 비틀기이자 해체이다.¹⁹⁾

2) 성장과 좌절된 성장

살펴봤듯이 홀든과 성북지대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속에 놓여있다. 아버지의 부재는 소년들에게 성장의 위기와 곤경을 초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부재는 소년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의 성장 여정에 대해서 혹자는 ‘세계에 대한 환멸을 느낀 성장 주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이때 그 무엇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미숙에서 성숙으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의 정립’이 성장소설의 핵심문법이며, 성장 주체의 변화의 가치는 참다운 정체성 탐색의 성취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고 말한다.²⁰⁾ 이를 간결하게 요약해보면 성장소설의 핵심은 자아 탐색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홀든과 성북지대 악동들의 성장 면모를 살펴보면, 홀든은 자아 정체성 및 주체의 정립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성북지대 악동들은 암울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이 좌절되고, 온전한 주체의 정립에 실패한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홀든과 성북지대 악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장과 좌절된 성장을 살펴보

19) 다성이 쉬더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도록 충동질하고, 쉬더가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은 ‘아버지 죽이기(殺父)’이다. 썬통은 아버지의 부재, 부권 부재가 초래한 부자지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 이는 작품 속 가정에서 소년들을 억압하는 혈연적 아버지인 ‘친부(親父)’에 대한 ‘살부’만이 아니라, 학교, 사회, 체제 등에서 규범, 법, 질서로 행해지는 모든 상징적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압에 대한 전복을 함의한다.

20)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26쪽, 100쪽 참고.

고자 한다.

홀든이 학교를 나와 뉴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세속적 담론과 상충되는 순수한 가치와 이상을 찾기 위한 방랑의 여정이자,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이 된다.²¹⁾ 학교를 뛰쳐나온 홀든은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며 대화와 소통에 갈급해한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순수의 가치와 이상을 지지하고 공감해 줄 진정한 타자를 찾기 위한 갈망의 표출이다. 그러나 뉴욕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세상이다. 세상은 진정성, 정직, 진실, 순수함을 갈망하는 홀든을 도외시하고 위해를 가한다. 작품에 보면 홀든이 수시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추악한 세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내면의 불안, 초조와 뒤섞여, 어지럼증과 구토라는 특수한 신체적 징후로 외현(外現)된 것이다. 심지어 홀든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상충 속에서 죽음마저 상상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 대해 극심한 혐오와 적개심을 표출한다.

그러나 홀든은 죽음으로의 소극적 도피 대신, 자신이 그렇게도 경멸하는 세상 안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한다. 이를 가능케 한 정신적 동력은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다. 앞에서 방치된 채 홀로 보도블럭을 걷는 아이를 염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홀든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장면은 ‘어린이’를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최초’의 자기 각성이 일어난 순간이다. 이후 자신을 향한 여동생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 천진무구한 동심을 마주하며 홀든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다. 그것은 다름아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아이들이 세상의 타락 속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가치를 획득하는 이 장면은 홀든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어

21) 뉴욕은 온갖 부조리와 타락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홀든을 억압하고 좌절시키는 위협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홀든을 연단케 하여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도록 인도하는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뉴욕은 양가적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성취하는 장면이다. 홀든에게서는 더 이상의 주저나 망설임 대신 어린이들로 표상되는 순수와 진실, 진정성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숭고한 정신과 책임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홀든의 최종 서사가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상태의, 미완의 열린 결말로 종결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말로 과연 그를 온전한 성장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의 성장 서사를 진정한 성장 귀결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실 홀든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어린이들이 세상의 때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려 해도,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다. 어린이는 결국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순수성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훼손되고 오염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상 속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홀든은 현실을 외면한 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 부적응자요, 사회 부적응자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신요양원은 홀든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거할 수밖에 없는 최종 귀착지인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홀든의 최종 귀착이 정신요양원이라는 사실과 그의 미래가 유보된 열린 결말로 끝났다고 해서, 그의 성장 서사가 좌절로 끝나버린 실패한 성장 결말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홀든은 아버지 부재가 초래한 성장 위기와 곤경 속에서도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나서는 ‘정체성 탐색’의 적극적인 여정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실현시킬 대상과 가치를 찾아냈다. 이는 홀든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모색하는 주체적 자아로 거듭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홀든에게서 필자는 성장의 곤경과 위기를 딛고, 주체의 정립을 성취하는 성장 주체의 성숙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성북지대 악동들에게서는 홀든과는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좌절된 성장’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성장이 좌절되고 주체의 정립을 성취하지 못했다. 성북지대 악동들도 자신들의 길을 이끌어 줄 대안적 대상을 찾고자 했다. 무림고수를 찾아

헤매는 다성이나, 주먹세계에서 생활하는 형들의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리던 홍치의 모습은 이에 대한 갈망의 투영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색과 갈망은 모두 무위로 끝났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무림고수 연산랑(嚴三郎)은 ‘뺨나무처럼 앙상하고 종잇장처럼 하얀 손’을 가진 병자일 뿐, 다성은 실망과 함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결국 참죽나무 거리의 일인자가 되길 바랬던 다성은 영웅 심리에 도취되어 객기를 부리다 허무한 죽음을 맞는다. 홍치에겐 두 명의 사촌 형 ‘마오터우(貓頭)’와 ‘동풍(東風)’이 있다. 이들은 성북지대에서 알아주는 대도파(大刀幫) 일원으로 홍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공공연히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기에는 사촌 형들의 후광효과에 기대어 자신의 비루한 자존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와 사촌 형들의 위세와 힘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 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혁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패싸움, 난투극, 폭행 등 폭력은 날마다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사이자, 거리의 아이들에게겐 생존의 절대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촌 형들이 패싸움으로 크게 부상을 입자, 그들은 더는 홍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의 성장을 이끌 대안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때 홍치의 눈에 포착된 메이치는 그의 좌절과 억압된 욕망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고, 그는 메이치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다. 이렇듯 한 명은 무모한 결투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다른 한 명은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범이 되어 수감 되고 만다.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십 대의 무모함과 성급한 충동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 스스로를 자기 파멸로 이끈 것이다. 이처럼 다성과 홍치의 성장 서사는 비극적 파국으로 중도에서 멈추고 만다. 쉬더에게는 비극적 파국의 서사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어린 이 상태로 퇴보한 듯한 성장의 퇴행(退行)이 보인다. 쉬더가 진란을 따라 칭다오행을 결정짓는 둘의 대화 장면을 잠시 인용해본다.

이따 기차에서 줄게. 세 갑이면 칭다오까지 가는데 충분할 거야; 지금 나더러 칭다오까지 데려다 달란 소리야? 나더러 기차를 같이 타자고?; 기차 한 번도 타본 적 없다면? 이번에 아주 밤낮으로 꼬박 타게 해줄게. 같이 칭다오에 가자.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후회하지

않을 거라니까. 야, 내가 장담해. 칭다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바닷가라서 여름이면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너 수영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가야지. 우리 세 사람이 기차를 타면 정말 한 가족 같겠지? 참죽나무길 사람들은 그럴 거야. 선쉬더가 진란이랑 바람나서 도망쳤다고.²²⁾

보시다시피 쉬더는 진란이 담배, 기차여행, 바다, 수영 등을 내세우며 꼬드기는 유혹과 부추김에 넘어가 칭다오행을 결정한다. 마치 사탕 사준다는 어른의 유혹에 빠져 따라가는 어린이가 연상된다. 소위 성장소설에서 가출이 주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의미성을 갖기 위해선 자아의 정체성 탐색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쉬더에게서는 자기 삶의 독립된 주체가 되려는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생략되어 있다. 장거리 기차를 처음 타본다며 마냥 들뜬 쉬더에게 칭다오행은 그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자, 무묘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자 탈출구일 뿐이다. 대화 어디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이나 성숙한 자기 각성은 아예 부재하다. 따라서 그의 가출은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자아를 찾고 성장을 실현하는 주체화의 과정으로 전혀 볼 수 없다. 이처럼 쉬더는 외형적으로는 어른과 같은 신체적 성장 면모를 보이지만, 오히려 정신적 성숙은 이와는 역행되는 퇴행, 퇴보적 모습을 보인다. 한마디로 쉬더는 소년과 어른의 경계에서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미성숙한 철부지이다.

썰룩이 샤오과이는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에서 우연히 무기 창고를 발견한 덕분에, 구국 소년, 혁명 소년이란 타이틀과 함께 ‘영웅’이 된다. 그리고 그는 지역 차원에서 당이 특별히 관리하고 양성하는 혁명 소년 대오 무리에 편입된다. 이후 180도 달라진 그의 모습을 책에서는 이렇게 서술한다.

썰룩이는 이미 예전의 그 썰룩이가 아니었다. 그는 과란 새 중산복을 입고 주머니에는 만년필 한 자루와 불펜 두 자루를 꽂고 있었다. 썰룩이의 표정은 비록 전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뻔질대긴 했지만, 이미 공식적인 연사를 꽤나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혁명의

22) 썬통,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367-368쪽 참고.

경계심을 높인 거지요.” 절룩이는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이건 일급비밀이라 지금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고요? 왜긴 왜겠어요. 괜히 소문을 퍼뜨려 적들이 우리의 계획을 알게 해서 굶어 부스럼을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²³⁾

천지개벽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달라진 처지는 옷차림, 언행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전전공공하며 남의 눈치나 보고 낮은 자존감으로 비굴했던 샤오과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거 청산은 자연스레 다성 무리와의 단절로 이어진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확실한 선긋기를 보이는 샤오과이의 처신 앞에, 그간 끈끈한 유대감으로 결속을 다진 악동 4인방 공동체 연대는 와해된다. 이처럼 당의 직접 육성 관리 대상자가 된 샤오과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대체할 성공적인 대안 대상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²⁴⁾ 그러나 둘 사이에 맺어진 이 상징적 부자 관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당이 샤오과이의 성장을 올바르게 선도할 대체 아버지로서 합당한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샤오과이는 신체적 콤플렉스, 엄마의 실존적 부재, 포악한 아버지로 인해 가장 극심한 결핍과 소외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악동 중 제일 음침하고 뒤틀린 면모를 보인 아이다. 그런 그가 운 좋게 찾게 된 대체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결핍과 소외를 일거에 메꿔주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구원자’와 같다. 그러나 대체 아버지가 흑백론, 이분법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주체적 사고와 행동을 억압하는 ‘절대자’, ‘독재자’ 아버지로 군림한다면, 이는 ‘구원자’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고 삶을 황폐화시킬 ‘파괴자’이다. 그 속에서 건강

23) 위의 책, 336쪽.

24) 소년들이 추구하는 대안 대상은 다성처럼 개별적 타자가 될 수도 있고, 홍치처럼 비슷한 동년배로 구성되어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때 집단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종교나 이념, 가치 등의 추상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샤오과이에게는 ‘당’, ‘이념’이 아버지 왕더지를 대신하여 그를 새롭게 이끄는 대체 아버지가 된다. 샤오과이가 중산복을 입고 관료들의 말투를 흉내 내고 마오의 어록이나 구호를 들먹거리는 것은, 그가 상징적 아버지로 대변되는 ‘당’의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시키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란 회의적이다. 이런 까닭에 샤오과이에게서 이념에 종속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왜곡된 성장을 마주한다.²⁵⁾

이상과 같이 성북지대 소년들의 각자도생하는 성장 서사의 끝은 죽음으로 삶이 종결되거나, 욕망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대가로 파멸하거나, 혹은 유아 퇴행적 면모를 보이거나, 혹은 이념의 통제에 순응하는 반(反)성장의 면모를 보인다. 이는 홀든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성장’이라는 문턱을 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3) 남방 소년 형상 서사

쑤통은 샬린저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소년 형상을 창조했지만, ‘자기화’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쑤통만의 색깔이 드러난 독특한 문학적 감성과 특징을 덧입힌 소년 형상과 서사를 구축한다. 본 절에서 필자는 특수했던 시대적 배경과 작가 개인적 성장 체험 속에서 배태된 세계관과 문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쑤통의 남방 소년 형상과 서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쑤통은 쑤저우 성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참죽나무 거리는 어릴 적 작가가 뛰어놀던 남쪽 지역의 옛 거리(南方老街)를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새롭게 복원한 거리이다. 이 공간에 쑤통은 유년 시절의 동무들을 소환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추억을 그들의 성장 서사로 재구성해 펼쳐낸

25) 작품의 배경이 문혁기임을 감안할 때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육성된 홍위병에게 샤오과이의 모습을 대입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홍위병들은 당의 선전과 혁명에 이용되다 결국 문혁의 종결과 함께 용도 폐기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만행들을 직시하며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것이 필자가 샤오과이의 성장 서사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할 점은 샤오과이는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과 학대에 걸로로는 굴종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정했다. 그런 그가 찾은 대안 대상이 친부를 능가하는 폭압과 독재를 행사하는 극좌 이데올로기이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 수립과 성장을 이끌 맹목적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모순적이며, 정상적 성장에 반하는 역설적인 반(反)성장을 보여준다.

다. 쑤통의 유년 시절엔 문혁의 세월이 성장의 얼룩으로 남아있다. 남방의 편벽한 동네에도 문혁의 피바람은 휘몰아쳤고, 쑤통은 그 시절 강렬했던 기억과 함께 시대의 폭력을 되새김질한다.

폭력은 쑤통 문학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그는 작품에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70년대에 폭력은 생활 속에 늘 있는 일상인지라, 이를 단지 소설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폭력에 대한 집착은 어린 시절 폭력에 대한 충격과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유년 시절 그는 거리의 일진에게 이유 없이 맞곤 했고,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때리느냐고 물으면 모르면 못 때리냐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심각하게 생존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폭력의 경험은 세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했을 뿐 아니라, 작품 창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²⁶⁾ 이처럼 어릴 적 폭력의 충격과 문혁 하에 자행된 시대의 폭압이 남긴 트라우마는, 그의 뇌리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강하게 각인된다. 이후 쑤통은 인간의 폭력성과 생존문제에 천착하는 작품을 대거 창작한다. 인간 내면의 폭력성이 시대적 환경과 맞물려 어떻게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는지, 인간이 폭력에 얼마나 처절하게 무력화되는지, 또 전이된 폭력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키는지,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존 모습을 보이는지 등등. 쑤통은 집요하리만큼 폭력과 인간의 본성, 생존문제에 천착한다.

『성북지대』 속에서도 가정폭력, 학교 폭력뿐 아니라, 혁명, 투쟁(批鬪)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된다. 폭력의 파장은 소년들을 폭력의 희생자에서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로 만들며, 그들을 폭력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폭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거리에선 강한 아이들만이 법이고, 이 무리에 속하고 연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폭력은 이들이 살아남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다. 이처럼 시대의 폭압은 생존을 위한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져왔고, 억눌린 울분과 좌절은 타인의 삶과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마저 태

26) 蘇童, 「虛構的背后是真實的自己」, <http://www.docin.com/p-797075621.html> 참고.

위버렸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끝에는 죽음과 같은 비극적 과묵만이 있다.

쑤통의 문학세계를 특징짓는 두 번째 키워드는 ‘죽음’이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생부를 연상시킬 정도로 수많은 죽음, 다양한 죽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유년 시절 경험한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쑤통은 초등학교 때 심각한 신경염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해야 했다. 그 시절에 대해 그는 건강한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밖에서 뛰어놀 때, 자신은 집에서 누워 꼼짝도 못하고 요양을 해야 했으며 스스로를 혼자만의 세상 속으로 고립시킨 암울한 시기였다고 회고한다.²⁷⁾ 질병의 위협, 생과사를 넘나드는 죽음에 대한 엄습은 어린 쑤통으로 하여금 죽음을 직시하게 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강박처럼 그를 따라 다녔다. 이는 또한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배태하게 했다. 더욱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문혁의 재앙은 삶과 죽음을 인식하는 그의 비극적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깊이 미쳤다. 쑤통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재난과 재앙으로 점철된 그 끝에 항상 비극적 죽음이 있는 것은 작가의 부정적·비극적 세계관의 문학적 표출이다. 아울러 그의 작품세계의 기본 정조(情調)가 어둡고 음침한 것 또한 이와 관계 깊다.

『성북지대』에도 수많은 불행과 재앙, 죽음이 운명처럼 따리를 들고 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쳤던 다성이 다시 폭력의 굴레로 회귀하는 아이러니는, 시대가 가하는 폭력의 자장으로 부터 탈주하려 해도 탈주할 수 없다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작가의 절망적 인식이다. 따라서 폭력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이 다성에게 주어진 숙명이 된다.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의 편견과 2차 가해에 메이치는 결국 자살로 꽃다운 목숨을 끊는다. 샤오과이 누나 진홍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내쫓겨 밤거리를 배회하다 동네 강패들에게 폭행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이외에도 백치 소년 멍멍이(狗狗)의 비극적 죽음이 있다. 멍멍이는 다

27) 蘇童, 「蘇童創作自述」, 『蘇童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2007, 14쪽 참고.

리 위에서 날아보겠다고 새 흥내를 내다 떨어져 죽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다. 아이의 위험을 지적에서 보고도 누구는 호기심으로 구경하고, 누구는 무관심에 그냥 지나갔다.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외면한 어른들의 방관, 엽기적 호기심, 무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방치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생명 경시, 비인간성, 시대의 잔인하고도 냉혹한 폭력이 조장한 죽음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 이외에도 여러 재앙과 비극이 작품에서 펼쳐진다. 이처럼 쑤통은 작품에서 고통, 슬픔, 불운, 절망 등으로 점철된 황폐한 삶을 그려낸다. 이 속에서 남방 소년들은 한순간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야반화처럼 짧디짧은 삶을 살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야반화는 어둡고 척박한 음지에서 살아가는 소년들의 모습과 운명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로서,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 파국을 암시하는 상징적 메타포가 된다.

쑤통 문학세계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미(美)’의 붕괴이다. 쑤통은 ‘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내 소설에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사실 원래부터 많지도 많기에 쉽게 훼손되고, 또 쉽게 변질된다. 그리고 많은 소설에서 나는 ‘미’의 퇴락과 훼손을 생각한다.”²⁸⁾ 보시다시피 쑤통은 ‘미’의 붕괴가 본인 소설의 ‘콤플렉스’라고 고백한다. 콤플렉스는 자아의 무의식 깊이 자리하며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콤플렉스는 개인의 특수한 인생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쑤통의 콤플렉스 또한 특수한 인생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문학’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조리와 폭력이 난무하고, 불운과 죽음이 넘쳐나는 황폐한 세상을 경험했던 쑤통으로서는 작품 속에서 도저히 ‘미’의 가치를 담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그의 부정적·비극적 세계관도 일조하였을 터이다. 필자는 쑤통이 자신의 결핍과 상처, 사회와 세상에

28) 我的小說中普遍有這麼一種情結，美是特別容易被推毀的，本來就不多，很容易受傷害，或者說是變質。還有好多小說中我自己想是美的退化和傷害。林周、蘇童，「永遠的尋找—蘇童放談錄」，《蘇童研究資料》，天津人民出版社，2007，103쪽.

대한 분노와 원망, 상실감과 절망감을 소설 속에서 ‘미’를 붕괴시키는 것에 투사한다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작가가 붕괴시키는 ‘미’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증이 든다.

쭈통의 작품 속에는 천태만상의 세상사가 들어있다. 쭈통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세상과 인간을 통찰하며 인간 사회의 정신적, 규범적, 본성적 가치 등이 좌초되는 지점을 빠르게 포착하여, 미의 붕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낸다. 예컨대 거짓과 허위, 부조리한 세상의 암초에 걸려 진리, 진실, 순수 등의 가치가 좌초된다. 사악, 증오, 배신 앞에 선량, 양심, 정의 등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속악하고 저질스럽고 퇴폐적인 인간의 욕망에 의해 고상, 숭고, 사랑 등의 가치는 더럽혀진다. 이외에도 쭈통의 많은 작품에서 윤리·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가치들이 훼손되고 붕괴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성북지대』에서도 폭력으로 피폐해진 인성, 처참히 유린되는 순결, 생명의 경시, 인륜의 실종, 도덕과 윤리의 타락, 저속과 음란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의 가치들이 전복되고 훼손된다. 특히 동심(童心)의 상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어린이’란 존재는 켈린저가 세상의 부조리와 추악에 맞서 형상화해내는 이 세상의 밝은 빛, 순진, 순수 그 자체이다. 그러나 쭈통의 손에서 형상화되는 어린이는 순진·순수의 결정체가 아니라, 쇠뿔이나 깨진 유리, 면도날, 머리핀과 같은 물건으로 어른들의 자전거 타이어를 펑크내며 위해를 가하는 악행을 일삼는다. 경찰관 샤오마의 자전거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펑크낸 대상은 고작 여덟 살의 여자아이다. 참죽나무 거리에서는 이렇듯 천진무구해야 할 어린 아동조차 동심을 상실하고 죄악이 스며드는 존재가 된다.

이상과 같이 쭈통이 창조하는 남방 소년 형상 서사는 비극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폭력, 죽음, 미에 대한 전복과 훼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순수와 구원이라는 낭만적 가치를 지향하는 켈린저의 작품과는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왜 쭈통 본인 스스로 미의 붕괴가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이에 더 몰두했는지 궁금하다. 부조리

하고 추악한 세상과 인간의 민낯을 날카롭게 폭로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미적 가치의 중요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레 작가의 의중을 헤아려 본다.

4. 나오며

이상으로 필자는 텍스트의 인물형상과 성장 서사 비교를 통해 소년들의 성장 고행 및 쑤통의 남방 소년 형상 서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봤듯이 홀든이 성장하는데 수반된 그의 고뇌와 방향은 순수의 가치를 찾고 수호하기 위한 저항의 몸짓이자 모색이었다. 홀든은 타락한 세상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의 충돌 속에서 치열한 내면의 고투 끝에 결국은 성장의 고통을 극복한다. 켈린저는 홀든을 통해 좌절과 방향을 던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화하는 긍정적 성장 서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쑤통은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고 폭압과 통제로 가득한 공간에서 억눌린 분노를 활활 태우다 결국 그 불에 소멸되는 소년들의 비극적 서사와 뒤틀린 성장을 그려낸다. 성북지대 악동들은 황무지와 같은 성장 환경 속에서 잡초 같은 거친 삶을 살아야 했다. 무자비한 세상에서 그들이 체득한 것은 냉혹함, 잔혹함, 야비함이었다. 이들에게서 엿보이는 불안, 긴장, 초조, 분노, 공격성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으레 겪는 성장통이나 홀든의 성장통보다 훨씬 가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반항과 방향은 자신들의 생존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살아나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생존 그 자체로 홀든의 관념적 성장통과는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청소년의 성장, 성장통이란 화두는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현재는 물론 영원히 유효할 문학적 테마일 것이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국적의 두 작가가 그려내는 소년들의 성장통에 대한 모습은 성장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아울러 성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숙고하게

만든다.

『성북지대』에서도 확인했지만 쑤통이 창조해내는 인물형상과 성장 서사는 쑤통만의 색깔과 독특한 특징들이 드러난다. 이는 비단 인물들의 성장 서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의 세계관, 작품을 관통하는 분위기, 문체 스타일, 스토리 전개와 결말 등 다방면에 걸쳐 쑤통은 샬린저와 또 다른 그만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작가가 말한 바와 같이 샬린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쑤통의 노력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남방 소년 형상’, ‘남방 소년 서사’, ‘남방 소년 성장소설’ 등²⁹⁾으로 불리는 작품들이 그의 문학세계에 또 하나의 특별한 나이트를 추가하였다. 그의 말처럼 ‘결국 본인 문학의 궤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남방 소년 형상 서사는 샬린저의 모방과 영향을 넘어, 특수한 사회·문화적 성장배경에서 형성된 작가의 독특한 인생관 및 문학성, 개성, 감성이 어우러져 창작된 문학적 성취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기억과 역사의 기억이 만나는 접점에서 탄생한 남방 소년 성장 서사에는 시대의 비극인 ‘문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통찰과 애도가 담겨있다. 문혁은 작가 개인의 기억이자 이 시대를 관통해온 동시대 중국인들의 기억이고, 동시에 중국 역사의 기억이다. 문혁은 그 시기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무형의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은 불안, 초조, 울분, 좌절, 무기력을 동력 삼아 재난의 터널을 관통해야 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킁킁한 어둠 속에서 뒤틀리고 왜곡된 채로, 혹은 멈춘 채로 그들의 성장은 가로막혔다. 한창 싱그럽고 푸르게 자랄 청춘은 제대로 된 싹조차 틔울 수 없었다. 이렇게 소년들은 성장할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렸다.³⁰⁾

29) 작가가 성장한 남쪽 지역의 옛 거리(南方老街)를 복원하여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재구성해서 펼쳐내는 쑤통의 소년 서사 창작물에 학계에서는 ‘南方’이라는 지리적인 기호를 붙여서 ‘남방 소년 형상’, ‘남방 소년 서사’, ‘남방 소년 성장소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한다.

30) 『少年血』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사춘기 남방 소년들, 불안정한 정서, 어두운 거리에 갑자기 진동하는 피비린내, 눅눅하고 습한 공기 속 싹을 틔우다 이내 문드러져 버리는 어린 생명, 푸른 석판길(靑石板) 위를 배회하는 뒤틀린 영혼들...이하생략

이러한 중국인들의 영원한 트라우마, 문혁이라는 아물지 않는 상처의 기억을 바탕으로 쑤통은 남방 소년 형상을 창조했다. 시대의 엄혹함 속에서 처절한 생존 고투를 벌이는 그들의 비극적 서사는 중국인들의 혹독했던 성장통에 대한 초상(肖像)이다. 쑤통은 통한의 세월 속에 각인되었던 역사의 상처를 소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투영하며, 이들의 청춘을 박탈하고 성장을 멈추게 한 시대를 향해 분노와 질타를 아울러 그 시절을 관통한 동시대인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어루만진다.

(一群處于青春發育期的南方少年, 不安定的情感因素, 突然降臨于黑暗街頭的血腥氣味, 一些在潮濕的空氣中發芽潰爛的年輕生命, 一些徘徊在青石板路上的扭曲的靈魂···)” 蘇童, 『少年血』, 江蘇文藝學出版社, 1995, 2쪽. 시대의 암흑 속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생사의 이수라장 속에서, 생존의 고투를 벌여야 했던 남방 소년 형상들의 비극적 말로가 이 문장 속에 응축되어 있다. 소년들의 비극을 응시하는 작가의 관조적 시선과 비통함을 꺾꺾 눌러 담은 절제된 어조는 먹먹한 여운을 남긴다.

參考文獻

- J.D. 샐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공경희 옮김, 민음사, 2001.
- 김성곤, 『J.D. 샐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 살림, 2005.
- 쭉툭, 『성북지대』, 송하진 옮김, 비채, 2011.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 김혜정,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의사소통 단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2007.
- 류현주, 『The Catcher in the Rye』에 나타난 주인공 Holden의 방황과 성장』,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06.
- 蘇童, 『少年血』, 江蘇文藝學出版社, 1995.
- 蘇童、王宏圖, 『蘇童、王宏圖對話錄』, 蘇州大學出版社, 2003.
- 汪政、何平, 『蘇童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2007.
- 徐恬, 「有覺悟的垮掉與散漫的迷失—塞林格與蘇童小說視角」, 『讀書文摘』, 2016年 8期.
- 周新民, 「塞林格與蘇童: 少年形象的書寫與創造」, 『外國文學研究』, 2009年 3期.
- 苗綠, 「向塞林格致敬—塞林格與蘇童少年小說比較」, 『白城師範學院學報』, 2006年 2期.
- 李俠, 「『刺青時代』與『麥田里的守望者』的成長主題比較」, 『文本研究』, 469期.
- 楊慶香, 「此間的少年—『麥田里的守望者』與『城北地帶』比較」, 『昆明學院學報』, 2012年 34期.
- 徐靜, 「塞林格與蘇童的成長小說比較」, 『池州學院學報』, 2014年 2期.
- 蘇童, 「我的讀書生涯」, https://m.thepaper.cn/baijiahao_18213562

Abstract

The Comparison of 『The Catcher in the Rye』 and 『The North Area』
— focusing on characters and growth narratives

Chang, Yun Son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examine the growth ordeals of adolescents in different eras and social environments by comparing the main character portrayals and growth narratives between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and Sutong's 'The North Area'. Both texts commonly depict the aspect of 'father's absence'. The absence of the father leads boys to wander with 'deficiency' and 'wounds'. However, Salinger, through Holden, illustrates the narrative of adolescent growth evolving from despair to hope, stepping beyond disillusionment and wandering. Conversely, Sutong portrays a tragic narrative and growth that prevents normal development in spaces filled with oppression and control. Sutong's depiction of the Southern boys and their tragic narratives represents portraits of the harsh growing pains of Chinese individuals created within the unhealed wounds and memories of the Cultural Revolution.

Key words : J.D. Salinger, Sutong, The Catcher in the Rye, The North Area, juvenile image, growing pains, the absence of father, The Figure of the Southern Boys

투고일: 2024. 1. 10. / 심사일: 2024. 1. 15.~ 2024. 2. 15. / 게재확정일: 2024. 2. 20.